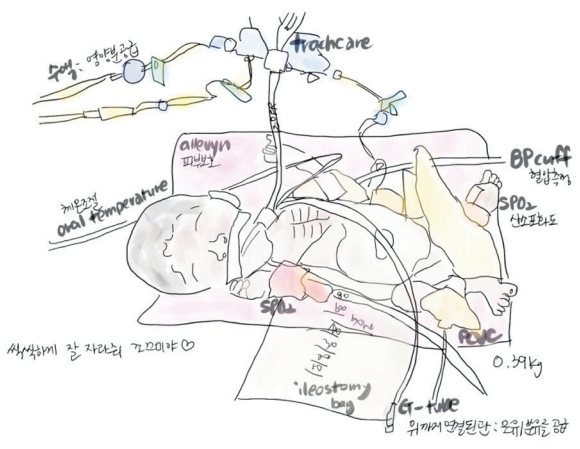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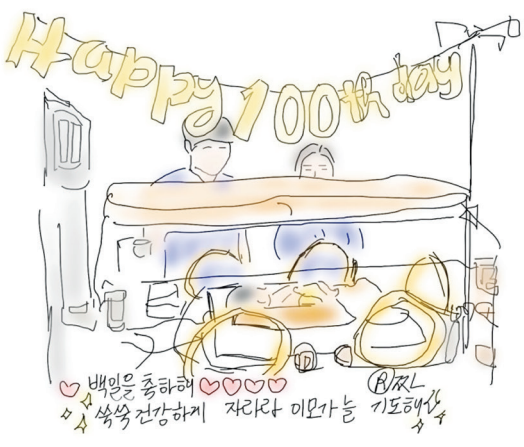
니큐,
너는 내 운명

제가 근무하는 신생아 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니큐)은 35주 미만 혹은 1.8kg 미만의 조금은 이르게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나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호흡기나 심질환, 선천성기형 등 집중간호 및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머무르게 되는 곳입니다. 대게는 1-2kg 남짓한 몸무게로 태어난 아기들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고 넘으며 따뜻한 엄마 아빠의 품을 기다립니다.

올해로 신생아중환자실 5년차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던 신규시절을 거쳐 지금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프리셉터가 되었습니다. 매년 열정에 넘친 병아리 같은 신규 선생님들을 보면 다시금 제 학창시절과 신규 간호사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학창시절 제 꿈은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간호하고 내가 간호한 만큼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라포를 쌓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 학생간호사였던 제 눈에는 누구보다도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 때 막연히 생각했던 내 간호의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신생아'라는 것만 다를 뿐 제가 중환자실간호사라는 이 일에서 느끼는 애정과 보람은 해가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이야기,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며 누구보다도 '처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고 느낍니다. 탄생이라는 처음의 순간, 첫 목욕, 첫 수유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이나 추석 혹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들. 누군가에게는 흔하게 흘러가는 처음의 순간이 이곳에서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입니다. 제가 유독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처음'이라는 순간을 신경 쓰게 된 것은 어쩌면 제가 신규시절 매일매일 맞이하던 처음의 순간들과 그것들을 반복하며 진정한 간호사로 성장해가며 한사람의 몫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내 모습을 같은 처지였던 아기들에게 투영하며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였던 것 같습니다.

▶ 1g의 기적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아기들은 한 시간에 1g정도의 무게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약 20-30g의 작지만 무거운 생명의 무게를 더하게 됩니다. 그 매일매일의 '1g의 기적'들이 모여 1kg이 되고 1.8kg에 도달하면 처음으로 베지넷(bassinet)이란 바구니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베지넷에 옮겨지는 순간은 모두가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습도와 온도가 조절되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스스로 체온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순간임은 물론, 그에 따라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있을 수도 있고 밤에는 솜이 아닌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할 수 있는 혜택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1kg가 되었다며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도 아기를 만질 수 없어 사진과 동영상으로나마 짧은 면회시간을 추억하려는 그 모습도 함께했던 제가 처음으로 아기를 안아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안겨드리는 그 순간이 좋습니다. 꽤나 묵직해진 아기의 무게와 일회용 가운과 일회용 장갑에 엄마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지만 연신 괜찮다며 한 시간의 면회시간 내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노래도 불러주고 휘파람도 불어주는 엄마, 아빠와 아기의 교감이 좋습니다.

▶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엄마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며 재밌었던 점이 유독 건강이, 쑥쑥이와 같은 태명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안건강하고 하나도 쑥쑥 자라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 태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이의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했던 어리고 아기를 본적이 없던 제게는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임을 아이에게 엄마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임을 몰랐던 저를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엄마의 작은 소망이자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꾸 보다보니 예뻐 보이는 아기들을 보며 엄마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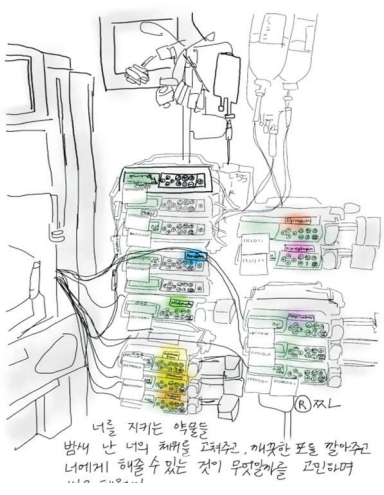
그렇게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는 두 번째 엄마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엄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아기와 함께하고 퇴원하기 전까지 아기의 첫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 엄마 아빠보다도 더 세심한 손길로 간호하고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내 담당 환아가 되는 순간 나는 오늘 그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아기의 상태가 나빠지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물 한 모금 화장실한번 가지 못하고 내 밥은 뒤로 미룬 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해줘야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은 제가 가장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처음 죽음의 문턱에서 위태로운 아픈 아기의 부모님을 면회시간에 맞이하던 그날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작은 생명의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느라 수액을 갈고, 처치를 하고, 복막투석시간을 맞추느라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믿으며 한껏 예민해진 채로 일을 하던 전 그렇게 슬픔에 잠긴 엄마, 아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아기와의 이별을 준비한 듯 담담하게 아기에게 작별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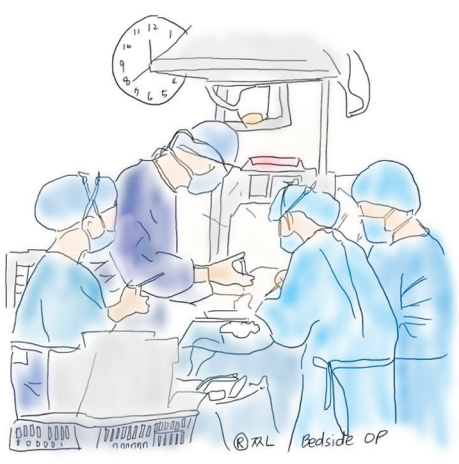


그러나 이내 슬픔이 몰려온 듯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투석, 저류, 배액이 무한 반복되는 복막투석의 굴레에서 지쳐가며 그 이별의 슬픔의 순간에도 슬픔을 온전히 지지해주지 못하고 무엇인가 해주어야하는 제 눈에서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물 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정성스럽게 물을 한잔 드리고는 아기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면회가 끝이 나고 어머니께선 물 한잔 밖에 드리지 못한 제게 연신 아이를 돌봐주어 감사하다고 하셨지만 돌이켜보니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엄마에게 아기를 보여드릴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기의 상태가 위독하면 그날의 생각이 나서 조금 더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깨끗한 포에 깨끗하고 푹신한 피부보호 패드를 깔아주거나 주변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하는 작은 일들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두 번째 엄마로 있으면서 아이들의 처음을 함께하는 건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은 해가 지나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을 함께하며 처음에는 슬프고 충격적이기만 했던 그 이별이, 지금은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마지막 모습을 예쁘게 지켜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 세 번째 이야기, 내가 너를 기억할게

앞선 이야기에서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 신생아중환자실은 어느 곳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삶과 죽음 사이의 그 시간들이 한눈에 보이는 곳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처음인 그날을,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인 그 순간을 반복하다 보니 전 스스로 그 날들을 기억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니큐에서의 소소한 일상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이 일이 신생아중환자실에 아기가 있는 보호자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그림과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그림이나 이야기를 응원해주시는 분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과 글을 보고 여러 지역의 신생아중환자실 선생님들과 그곳에선 어떻게 간호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처치물품이나 처치방법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이 되어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의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어떤 그림을 어떤 글을 그리고 쓸까를 고민하고 정성스럽게 올린 게시물들을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해 주는 그 순간이 즐겁습니다. 가끔씩 메시지로 이렇게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간호해주어서 감사하다는 그 말도,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것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제게는 큰 힘이자 행복입니다.

세상에 '운명'이란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비록 학부시절 병원에서 마주했던 많은 환자들은 성인이었고 이론으로 배웠던 대다수의 내용들도 성인의 질병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4년의 대학시절동안 꾸준히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으며 국외 문화탐방에서 조차도 많고 많은 병원 중 미국에서 가장 소아과로 유명한 보스턴어린이병원을 탐방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을 둘러보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때의 감동이나 병원의 환경은 어쩌면 제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암시를 해준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이 나의 운명이었음을 그것이 내 일임을 다짐하며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첫 순간을 함께 기뻐하러, 힘든 고비를 함께 넘어가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배웅하러 출근길에 나섭니다.